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17. 1. 10.(수) 총 6매(본문6)	
<b>담당 부서</b>	공항공정 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나웅진, 사무관 천홍식/허나운, 주무관 권오준 • ☎ (044) 201-4328, 4337, 4333
<b>보 도 일 시</b>		2017년 1월 1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1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제2 여객터미널,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 공간 구성·배치 여객 대기시간·환승 동선 최소화...실내조경 확대·상시 공연장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월 18일 개장되는 인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에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 다양한 공간을 구성·배치하였고, “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을 위한 공간” 이상의 가치를 이루어냈다.
- 제2 여객터미널이 1월 18일 개장하면 인천공항은 기존 제1 여객 터미널과 새로 개장하는 제2 여객터미널로 분리 운영된다.
  -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, 저비용항공사 등 86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,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,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 항공,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.
- 기존 운행하던 일반·리무진 버스, 공항철도·KTX는 모두 제2 여객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고,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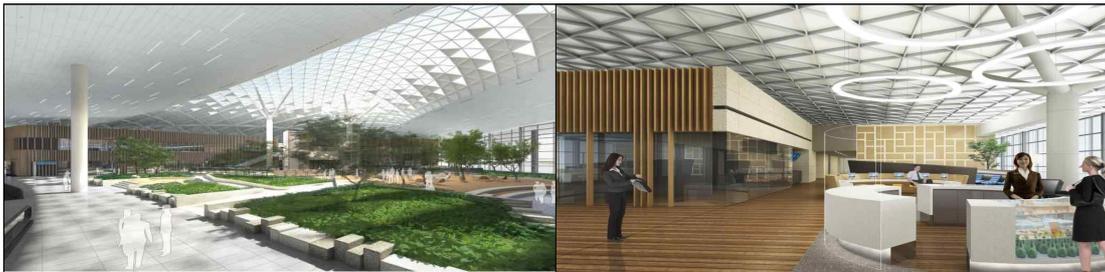
- ① 공간배치에서 이용객을 먼저 생각하는 공항
  - 터미널 층고 상향, 출국심사지역 동·서 2개소 통합 배치 등
- ② 세계허브공항으로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배려하는 공항
  - 환승여객 동선 최소화, 환승여객 휴식공간 조성
- ③ 자연과 함께 살아숨쉬는 푸르른 하늘과 닮은 공항
  - 실내조경 확대, 수경시설·녹지화단, 벽면식물녹화, 정화식물 등
- ④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를 살리는 공항
  - 태양광/지열에너지,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시스템 등
- ⑤ 문화와 어우러지는 공항
  - 예술작품 배치, 상시공연장(그레이트홀) 조성, 전통문화센터

## 【 공간배치에서 이용객을 먼저 생각하는 공항 】

- 제1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파악된 이용객 이용경향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객 동선을 개선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.
  - 공항은 하늘과 연결되는 시설로서, 공항 건축물은 개방감이 특히 강조된다. 제2 여객터미널은 제1 여객터미널보다 층고가 20% 높아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.
  - 출국 심사지역이 4개로 분산된 제1 여객터미널과 달리 출국 심사지역을 동·서 2개소로 통합시켜 여객 처리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여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.
  - 출국 심사지역을 지나 격리 대합실로 들어서면, 중앙에 상업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쇼핑을 즐길 수 있다.

## 【 세계허브공항으로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배려하는 공항 】

- '16년 여객규모 세계 7위 공항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을 넘어 세계 허브공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객에게 매력 있는 공항이 되도록 환승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.
- 환승 카운터와 환승 보안검색대를 근접 배치해 환승 여객의 동선을 최소화하였다.
- 환승지역에 대규모 실내정원을 설치하고, 자연채광을 통해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,
- 디지털 라이브러리, 스포츠 및 게임 공간, 인터넷 존, 샤워 룸, 안락 의자 등 편의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고 쾌적한 기다림을 즐길 수 있다.



## 【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푸르른 하늘과 닮은 공항 】

- 항공보안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터미널 건물 내에 작은 공원을 여럿 조성하고 자연의 “치유” 기능을 적용하였다.
- 실내 조경면적을 제1 여객터미널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, 녹지와 수목이 살아 숨 쉬는 공항을 조성했다.

- 제2 여객터미널을 들어서자마자 넓은 터미널 공간 안에 울창한 나무가 식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보안검색대로 이동하는 길목에는 수경시설과 녹지화단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.
- 식물녹화로 마감된 실내 벽면,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정화식물은 건축물 그 자체가 하나의 식물로 살아 숨 쉬는 기능을 하게 한다.



## 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를 살리는 공항 】

-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24시간 운영하며 소비되는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.
-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지열) 시설을 대규모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률을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약 40% 향상시키고 녹색 건축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.
- 제2 여객터미널 지붕 위에 태양광전지, 제2 교통센터 지붕에 건물 일체형태양광을 전면 부착하고, 공항 주변 유희지 내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였다.

- 지열 설비를 이용한 냉·난방시스템,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시스템, LED 조명 등 고효율 기자재 및 환경냉매를 사용하였다.



### 【 문화와 어우러지는 공항 】

- “교통수단”으로서의 공항의 기능 뿐 아니라,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용객이 공항에 머물면서 “문화예술”과 어울릴 수 있도록 예술작품 배치 및 상시 공연을 시행한다.
- “공항”이라는 공간 특수성,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“한국”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공항 곳곳에 배치하였다.
  - 해외 다수의 공항에서 특이한 조형물이 해당 공항의 상징이자 해당 국가의 첫인상, 마지막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. 제2 여객 터미널에는 총 16종의 예술작품이 54개소 설치되어 인천공항의 상징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.
- 정기 문화공연 등 언제든지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인 “그레이트홀(Great Hall)”을 조성되어 클래식, 전통, 미디어퍼포먼스 등 고품격 공연이 열린다.
  - 앉아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계단식 관람석도 설치되었다.
- 해외이용객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센터를 운영한다.

- 전통복식체험, 전통공예 전시 등이 이루어지며, 한옥을 테마로 대청마루가 조성되어 그 자체로도 한국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.

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제2 여객터미널 건물 설계부터 운영계획 수립까지 모든 부분에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수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”며, “우리 국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공항 이용을,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손님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공항으로 거듭나겠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 “1월 18일부터 대한항공,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항공, KLM 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하므로, 공항 이용객은 공항을 이용하기 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천흥식 사무관(☎ 044-201-43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